

2001년도 대러 외국인투자 현황

□ 구소 해체 이후 최대수준

- 2001년중 대러 외국인투자는 전년대비 30.1% 증가된 142억 5,800만 달러로 구소연방 해체 이후 최대수준에 달함

<표 1>

대러 외국인투자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전년대비
							증가율
외국인투자	6,970	12,295	11,773	9,560	10,958	14,258	30.1
(직접투자)	2,440	5,333	3,361	4,260	4,429	3,980	△10.1
(증권투자)	128	681	191	31	145	451	211.0
(기타투자)	4,402	6,281	8,221	5,269	6,384	9,827	53.9

자료 : 일본 러시아동구무역회, 러시아·동구무역조사월보, 2002. 4

□ 광공업, 상업·외식산업에 투자 집중

- 부문별로는 광공업, 상업·외식산업 등으로 투자가 집중되어 각각 전체의 39.2%, 37.1%를 차지하였으며, 특히 상업·외식산업에 대한 투자는 전년대비 3배 수준에 달함

- 기술이전 등과는 무관한 소매업에 대한 투자증가로 경제적 기여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직접투자는 39억 8,000만 달러에 그쳐 전년대비 10.1% 감소됨으로써 1998년 금융위기 이후 3년 계속 감소세를 보였으며, 전체 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40.4%에서 27.9%로 낮아짐

- 부문별로는 광공업이 17억 5,300만 달러로 최대 직접투자부문으로서의 위치를 지켰으며, 그 다음으로 상업·외식산업 7억 5,700만 달러, 운송 6억 8,900만 달러의 순임

<표 2>

부문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부 문 별	금액	비중	
		비중	직접투자
광 공 업	5,662	39.7	1,753
연 료	1,023	7.2	430
철 강	1,072	7.5	116
기계·금속가공	703	4.9	316
식 품	1,557	10.9	528
상업·외식산업	5,290	37.1	757
자본재·기계 판매	792	5.6	227
기 타	2,514	17.6	169
합 계	14,258	100.0	3,980

자료 : <표 1>과 동일

- 광공업의 경우 식품(5억 2,800만 달러), 석유채굴(4억 2,300만 달러), 기계·금속가공(3억 1,600만 달러) 등 3개 부문이 전체의 70% 이상 점유
- 외국인 직접투자는 1/4분기중 8억 2,900만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4% 감소함으로써 2002년에도 감소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

< 외국인 직접투자 장애요인 >

- * 부패, 러시아측 파트너에 대한 신뢰 부족,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 미비 등이 직접투자를 꺼리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이 되고 있으며, 석유부문과 관련해서는 운송망의 확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러시아 국영 운송망 독점기업인 Transneft는 시베리아산 원유를 세인트 피터스버그 인근의 Primorsk로 운송하는 Baltic Pipeline System의 확장과 Druzhba Pipeline의 아드리아해 연결, 중국으로의 Pipeline 건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정치·지리적 문제 등으로 그 실현성은 의문시되고 있음

* 이 외에 생산물공유법(Law on production sharing agreements : PSA)의 개정이 지연되는 등 세제·법적 인프라 개선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또 다른 장애요인임

- 증권투자는 4억 5,1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10% 증가
- 1998년 금융위기 이후 발길이 뜸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외국인의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러시아기업에 대한 평가도 새로워지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 국별로는 사이프러스, 미국, 영국 순

- 국별로는 총 109개국에 투자한 가운데, 2001년중 사이프러스(23억 3,100만 달러), 미국(16억 400만 달러), 영국(15억 5,300만 달러), 스위스(13억 4,100만 달러), 네덜란드(12억 4,900만 달러) 등의 순이었음
- 러시아의 전통적인 자본 도피처 역할을 하고 있는 사이프러스, 네덜란드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한 바, 이는 러시아의 해외 도피자본이 역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음
- 2001년중 해외 자본도피규모는 2000년 대비 100억 달러 감소한 180억 달러 수준이었던 것으로 집계됨
- 2001년 말 현재 대러 외국인투자 누적액은 356억 2,400만 달러였으며, 국별로는 독일이 60억 8,600만 달러로 17.1%를 점유,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미국(56억 2,600만 달러, 15.8%), 사이프러스 (53억 700만 달러, 14.9%), 영국(38억 1,200만 달러, 10.7%)의 순이었음

<표 3>

국별 외국인투자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01		누계액			
		비중	직접투자		비중	직접투자
사이프러스	2,331	16.3	512	5,307	14.9	3,729
미국	1,604	11.3	1,084	5,625	15.8	4,083
영국	1,553	10.9	273	3,812	10.7	1,898
스위스	1,341	9.4	51	770	2.2	271
네덜란드	1,249	8.8	575	2,542	7.1	2,148
독일	1,237	8.7	495	6,086	17.1	1,512
프랑스	1,202	8.4	51	3,282	9.2	1,898
일본	408	2.9	184	700	1.9	349
기타	3,333	23.3	755	7,500	21.1	2,281
합계	14,258	100.0	3,980	35,624	100.0	18,169

자료 : <표 1>과 동일

□ 모스크바시, 세인트 피터스버그시 등 도시지역에 투자 집중

- 러시아내 지역별로는 2001년중 모스크바시, 세인트 피터스버그시에 각각 56억 5,400만 달러(전년대비 40.1% 증가), 11억 7,100만 달러가 각각 투자 되는 등 주로 대도시지역으로 투자가 집중됨
- 한편, 금속·기계산업이 주요 산업인 우랄지역의 스베르들로프스크주와 석유자원이 풍부한 볼가지역의 타타르스탄공화국에 외국인투자가 2001년 중 각각 7억 4,800만 달러, 6억 5,100만 달러에 달해 전년의 4.5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선임조사역 오 은상(☎02-3779-6644)
E-mail : oes@koreaexim.go.kr